

## 치 사

음악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세상에 불법을 전하는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음성공양을 통해 스스로 신심을 돈우고 이웃에 불법을 전하는 여러분의 정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불교음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음악은 단순히 음악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음의 등을 밝혀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고해와 같은 삶을 헤쳐 나가는데 정신적인 위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불가의 현실은 대중 전반의 관심보다는 사찰 합창단과 몇몇 뜻있는 불교음악인들의 애정으로만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찬불가들이 만들어지고 사찰과 불자들에게 널리 전해지고 신행활동과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합창페스티벌은 전국에서 모인 여러 불자님들이 맑은 영혼을 담은 불교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화합의 자리이며 축제의 마당입니다. 오늘의 축제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불교음악 발전에 지속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귀한 축제를 함께 만들어주신 합창단과 지휘자, 그리고 가족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25일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원장스님 치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